



표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만민중앙소식

이 신문은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news.manmin.or.kr

등록번호 : 다-1840(1989. 7. 12.)
편집처 및 발행소 : 만민중앙성결교회
발행인 : 이재록
인쇄인 : 김신경
편집인 : 빈금선

서울 구로구 구로동 235-3번지 ☎02-818-7000
e-mail : manminnews@hotmail.com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띤 만민중앙성결교회

제388호(구408호) 2009. 4. 19.(격주간)

부활, 주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절 기념예배 및 성례전, 칸타타 공연



부활절을 맞아 우리 교회에서는 기념예배 및 성례전, 칸타타 공연이 있었다. 4월 12일,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주일 대예배 때 「부활의 의미」(요 14:6)를 전했고, 저녁예배 때에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요 6:53-55)이라는 말씀 증거에 이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식을 집례했다.

이에 앞서 학습, 세례식은 3월 29일과 4월 5일에 각각 치러졌다.

4월 10일 금요일 2부 때에는 부활절 기념 칸타타 「회상」을 공연했다. 예능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 공연은 배우, 스태프, 성가대 등 500여 명이 동원되었으며, GCN(세계 기독교 방송 네트워크) 방송 등을 통해 전 세계에 방영될 예정이다.

부활의 기쁨을 더한 계란 나누기 행사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맞아 계란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여선교회에서는 전 성도는 물론, 인근 관공서와 벤처 타운, 상가와 주택 등에 계란을 나눠 부활의 기쁨을 더했다.

주일에도 근무하는 빛과 소금 선교회에서는 백화점, 요식업 직원들에게 예쁘게 포장한 계란을 나눠주며 주님 사랑을 전했다.



복음의 선율이 흐른 닛시 해피 콘서트



우리 교회 닛시 오케스트라(국내 최초 찬양전문 오케스트라)에서는 4월 9일, 구로 디지털 밸리 에이스트윈 타워 앞에서 제7회 '닛시 해피 콘서트'를 열었다. 디지털 밸리 복음화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나눔 행사로 치러진 이날 공연은 '열린 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금관 5중주, 스트링 앙상블을 비롯,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비브라폰과 전자 바이올린 연주 등을 선보이며 관객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국내외 뉴스

에디오피아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
(4. 2. ~ 6. 강사 정명호 목사)

GCN 파워 프레이즈
(4. 7. 인도 이수진 목사)

부평 지성전 입당 10주년 기념예배
(4. 7. 설교 이미영 목사)

만민성서아카데미 1학기 개강예배
(4. 9. 설교 이종원 목사)

인도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
(4. 14. 강사 한정희 선교사)

파키스탄 목회자 세미나
(4. 15. ~ 25. 강사 길태식 목사)

공주만민교회 창립 8주년 기념예배
(4. 19. 설교 이희선 목사)

성결과 권능 시리즈 · 실천편 4

태초에 하나님께서 발하신 근본의 소리는 오늘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근본, 하늘들에 대해 소개하며, 근본의 소리를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를 당신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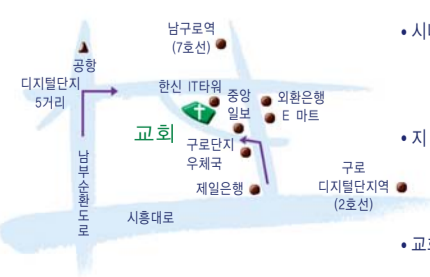
| 이재록 목사 지음 | 208쪽 | 값 8,000원 |

우림 ☎02)837-7632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 오전 10:00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비올·마리아]	오후 8:00
	2부 · 오전 11:30		
	[빛과소금선교회 오후 9:00]	수요찬양예배 [빛소금]	오후 9:00
	[요식업선교회 오후 11:00]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오후 4:00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오후 3: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금요철야예배	오후 11:00	아동주일학교 주일예배	1부 ·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 오전 11:40
새벽예배	새벽 5:00		저녁 · 오후 1:30

교회 약도



- 시내버스: 5536, 5615번 (교회앞 하차)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오거리 하차)
-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 (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차량팀 ☎ 02-818-7391~8)

만민중앙소식을 받아 보시려면

- 이 소식을 받아 보기 원하시는 분은 먼저 전화로 구독 신청하신 후 우송료를 지정은행 또는 우체국에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 우 송 료 : 1년분 5,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 구독신청 : 02-851-3845, 070-8240-5609
 - 온라인 번호 [예금주: 위성영]
-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 11:1-3)



보배 중에 보배인 믿음은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어떤 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질병, 가정, 일터, 사업터의 문제 등을 해결받는 것도 믿음만 있다면 어려울 것이 없지요.

믿음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 곧 영적인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육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1. 육적인 믿음이란

첫째, 자신의 지식과 생각에 일치하는 것만 믿는 믿음입니다.

흰 수건을 가지고 희다고 할 때, 흰색을 확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말을 믿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세상 사람도 가질 수 있는 믿음이지요.

우리가 배운 지식은 세월이 지나면 변하는 것도 많고, 나라와 민족, 또는 개인마다 진리라고 생각하는 지식이나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오래 전에는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며 태양이 지구의 주변을 돈다고 배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진리인 줄 알았지만 지금은 이것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리를 알려 준다 해도 그것이 자신이 아는 지식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을 비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진화론을 배웠기 때문에 창조를 가르쳐 줘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천, 수억만 년이 지나도 물고기는 육지 동물이 될 수 없으며 유인원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배운 사람은 진화론을 굳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전폭적으로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이론에 맞는 부분만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권능의 역사도 납득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니 기사와 표적에 대한 기록을 읽으면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상징이나 비유라 생각하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 하면 물이 얇은 곳을 걸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약을 먹고 수술해서 질병이 나았다 하면 믿어지지만 단지 기도만 받고 나았다 하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지요. 이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며,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의 생각과 지식에 상관없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므로 절대적으로 진리임을 믿는 것입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둘째, 변개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며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해 보지만 응답이 속히 나타나지 않으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생기니 점차 은혜가 떨어지고 과거에 응답받은 것이나 주위 사람들이 응답받은 간증까지도 우연의 일치처럼 의심하게 되지요. 응답받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것이지만 참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약 1:6, 7).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막 11:24). 어떤 문제를 놓고 믿음으로 기도받았다면 더 이상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기뻐해야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응답받았다는 믿음이 변함없을 때 참 믿음이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셋째,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아는 것이 아닌 마음 중심에서 믿어질 때, 순종하는 행함이 따릅니다. 구약 성경에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오랜 가뭄 중에 마지막 남은 한 끼의 양식을 선지자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 결과,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과 가루 통에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지요(왕상 17장).

그런데 육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성경적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막상 어려운 상황이 현실로 직면하면 행치 못합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겠다면 십일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기도 하고 갖가지 예물을 심는 것에도 인색하지요. 하나님께 심는 것마다 축복으로 거둔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인색할 리가 없는데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행치 못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께서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세상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 없는 이러한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지 아사 왕이 병들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가 죽었다는 말씀(대하 16:12, 13)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26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응답도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구원조차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2. 영적인 믿음이란

영적인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며 눈에 보이지 않고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에 맞지 않아도 믿어지는 믿음으로서 무에서 유의 창조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라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에 의심 없이 믿어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믿음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 있습니다(롬 12:3). 즉 영적인 믿음의 분량은 사람마다 달라서 이 믿음이 있는 만큼 기도하는 대로 무엇이든 응답받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도 스스로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축복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응답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좇아 행하는 만큼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을 주시며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영적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히 11:1). 아직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더니 실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산 증거가 나타나지요. 모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 홍해가 갈라졌고(출 14:21),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고 외쳤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수 6장).

또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無)의 상태에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압니다(히 11:3). 따라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로 영적인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믿어질 수 있습니다.

3.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려면

첫째, 반대되는 생각과 이론을 깨뜨려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배운 모든 지식과 이론, 사고와 가치관은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불변의 진리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지식과 이론을 옳다고 고집할 때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을 소유하려면 세상에서 배운 것이 하나님 말씀과 대치될 때 철저히 그 생각과 이론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고후 10:5, 롬 8:7).

둘째,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워서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마음을 진리로 채워 나가면 진리와 반대되는 비진리는 빠져나가고 깨끗한 마음을 이룹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행하는 만큼(롬 10:17)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적인 믿음을 주시지요. 따라서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요일 3:21, 22).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처음에는 지식으로 담아두게 되고, 이 지식을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 영적인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악보를 암기한다고 피아노를 잘 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피아노 연습을 해야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듣는다 해도 행치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려 해도 즉시로 그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불같이 기도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면 작정, 철야, 금식이라도 해서 반드시 능력을 받아야 하지요. 중심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하나 체험을 하면 더 큰 것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영적인 믿음이 장성해 온전한 분량에 이르게 되지요.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명하신다 해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축복이 임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마음의 소원에도 응답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이 땅에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축복을 받으며, 장차 천국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처소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세계인만민

MANMIN IN THE WORLD

방송과 책자, 손수건 기도를 통해 전파되는
성결 복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와 생명으로 나오고 있다.



몽골



손수건 기도로 뇌경색, 우울증 치료받아

토야 허렐마

나는 심한 뇌경색으로 몸의 왼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 뇌혈관이 80% 정도가 막혔다고 했다. 때때로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 진통제를 복용하며 술, 담배를 달고 살았다.

2008년 1월 16일, 그날 역시 굉장히 아프고 우울한 하루였다. 그런데 내 생일을 맞아 케이크와 와인을 준비한 자녀를 보며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날, 막내딸 앵호 자야와 병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는 상태가 악화되어 앞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엄마는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구나..." 내가 이 말을 하자 어린 딸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졌다.

돌아오는 길에 몽골 만민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딸이 교회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좋은 노래가 있어요. 엄마, 같이 들어가요." 나는 어느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 감동스러운 찬양이 흐르고 있었다. 찬양의 가사에 흠뻑 빠진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순간 확신할 수 있었다.

발저릭 선교사(몽골만민교회 담임)님에게 성경과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칼럼 모음집 『지혜의 샘』을 선물받아

읽고 큰 은혜를 받았다. 얼마 있지 않아 나는 GCN 방송을 통해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고 주일예배를 드렸다. 그때마다 화상으로 당회장님 환자기도를 받을 수 있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 나는 흐느적거리는 몸을 움직여 집집마다 전도하고 심방하며 교회 청소 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아 했다. 성경을 읽고 순종하기를 힘쓰며 현실이 어려워도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는 사이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점점 회복해 갔다.

2008년 4월 27일, 나는 발저릭 선교사님의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손수건 기도(행 19:11, 12)로 뇌경색이 깨끗이 치료되었다. 5월경 병원 진단 결과, 정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머리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울증도 치료된 것이다.

그해 10월, 나는 GCN 방송을 시청할 때마다 항상 은혜로운 모습에 감탄하던 만민중앙교회 창립예배에 함께했다. 또한 꿈에 그리던 당회장님을 뵈고 기도받을 때 전류가 온몸을 타고 흐르며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몽골로 돌아온 나는 요즘도 그때를 떠올리며 그리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건강한 삶 속에 천국 소망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르완다

성결 복음의 진수를 맛본 후 깨달은 하나님 뜻

젠 버크만 목사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2006 뉴욕 연합대성회, 그곳에선 강사 이재록 목사님이 확실하게 하나님 뜻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물질 축복에 관해서는 얘기하지만 성결을 이루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록 목사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성결한 마음을 이뤄 하나님 자녀로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영육간에 축복을 받는 비결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2007년 이후로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사역하면서 성결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케냐 방문을 통해 비숍 정명호 목사님을 만나 르완다에서 세미나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지요. 세미나에서 저는 르완다어로 통역하면서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결 복음을 들은 지도자들과 성도 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재록 목사님과 만민의 사역에 대해 더욱 많은 것을 배우며 하나님 뜻을 밝히 전하길 소망합니다.



콜롬비아

열매 맺는 삶으로 거듭나게 한 만민 사역

셀리아 파타로요



저는 엔라세 방송을 통해 주일마다 이재록 박사님의 설교를 시청합니다. 설교 후 해 주시는 환자 기도로 저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불안증이 치료되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만민중앙교회의 성가대와 닥시 오케스트라, 찬양팀과 무용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만민중앙소식'(스페인어판)과 이재록 박사님의 간증 책자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읽고는 하나님께서 지구 반대편에 그의 기뻐하시는 종을 세우셨다는 것에 감동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제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로 알게 해주었습니다. 『천국(상)』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말한 셋째 하늘과 성경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의 의미를 알고 실제 존재한다는 것도 믿을 수 있었지요.

방송, 책자, 신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믿음이 성장해 열매 맺는 삶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만민'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인터뷰 | 페르난도 보르본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

하나님 은총으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나요?

24년 전, 저는 건강뿐 아니라 경제력, 가족과의 문제로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주치의는 제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침투한 뇌막염에 걸렸고, 의학적 치료가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했지요. 약을 입에 달고 살았고 저의 업무 능력과 성격은 날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친구 소개로 처음 교회를 찾았을 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술, 담배를 끊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하나님께

서서 뇌막염을 치료해 주셨지요.

'만민'과의 인연이 궁금합니다

마누엘 몬테스 사장(엘살바도르 라디오 메시아스)으로부터 만민중앙교회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가거든 이 교회에 나가라고 얘기해 주었지요.

2007년 10월 2일, 한국에 온 저는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했고, 얼마 뒤에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경부(목) 통증을 치료받았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시력이 갈수록 떨어져 거의 보이지 않

을 정도였습니다. 의사는 당장 수술하자고 했지만 무안 단물을 뿌리며 기도했더니 시력이 회복되었지요.

주님의 대사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저는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 한국에서 신실한 기독교인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마음에 소원한 대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권위로 가득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게 되었지요.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신앙심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사로서 대사라는 직분을 통해 가는 나라마다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이후로도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제가 보고 배운 많은 것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것입니다.

폐, 임파선 결핵을 치료받고 확 트인 행복의 길

전인준 집사 (1-3가나안선교회, 드라맥스 케이블 방송사 근무)



케이블 방송국 OAP팀에서 방송 디자인을 할 무렵입니다. 일의 특성상 계속되는 야근과 불규칙적 생활로 몸에 피곤이 쌓였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데다 여러 가지 주변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점차 다니엘 철야를 빠지고 기관장으로서 사명 감당을 게을리 했지요. 어느새 저는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마저도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2007년 8월 어느 날, 세수를 하는데 목에서 포도알만한 혹이 여러 개 만져졌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점점 혹이 커지자 저는 인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폐에 있던 결핵균이 림프절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켜 임

파선이 부은 임파선 결핵이었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저는 검사만 받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때서야 저는 잠에서 깬 듯 시간을 갖고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보호받지 못한 이유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세상일에 쫓겨 기도를 쉬고 사명 감당을 게을리 한 것, 세상을 사랑한 마음을 회개하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니다. 곧 부기는 가라앉았지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의지로 쉽지 않은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자 버릴 수 있는 힘이 왔고,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소망과 주님 마음을 닮아 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더 좋은 열매를 낼 수 있었지요. 교회에서는 회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심방하며 식당, 휠체어 봉사 등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에 힘썼습니다.

생활에 불편을 못 느낄 정도로 몸이 회복했지만 저는 온전히 치료받고자 2008년 11월, 특별 은사집회에 환자 접수를 했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안수 기도해 주실 때 치료의 확신이 들었지요. 병원 검사 결과는 폐와 임파선 모두 정상이었습

니다. 할렐루야! 치료해 주시고 직장에서도 더 좋은 경과 조건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꿈에서 본 저는 지옥 불못에 빠져 있었습니다”

박형배 형제 (1-1가나안선교회)



입대 전, 어머니로부터 받은 『지옥』 책자를 읽고 저는 말로만 듣던 지옥의 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병 때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저는 세상 쾌락을 취하며 살고 있었지요.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심판대 위에 섰고, 하나님 보좌 앞 유리바다에 저의 모든 행실이 비쳐졌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일말의 선도 보이

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가라.”고 말씀하셨고, 곧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너무나 놀라 잠에서 깬 저는 잠시 후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가 불못에 머리만 내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그곳에서 꺼내달라고 울부짖었지요. 바로 그때, 눈부신 빛으로 둘러싸인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제 머리 위에 나타나 제게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영혼도 잃지 않으려는 목자의 눈물의 간구를 들으신 까닭일까요?

저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뒤, 제 신앙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지옥』 책자를 통해 지옥의 참상을 밝히 알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 세계 최대 인터넷 서점 아마존닷컴 서평 중에서 |

구원의 중요성을 발견하는 책

이재록 목사는 우리가 죽고 나서야 지옥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닫길 원치 않는다. 내용은 성경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구분된 지옥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가장 슬픈 일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천국 소망 없이, 지옥의 두려움을 모르고 범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지옥의 공포에 대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구원의 길로 인도받고, 다른 사람의 구원도 도울 수 있다고 본다.

인류를 위한 놀라운 선물, 이재록 목사의 『지옥』 책자는 한번 읽어볼 만한 매우 흥미로운 책이다. 종교단체의 독서 자료로도 적극 추천한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을 이용한 동시 화상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5335-542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2동 1323-12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2018-8410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53)783-3017, 010-7112-3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1-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062)513-2455, 011-387-0263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1 ☎062)372-1002, 011-601-10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문충동 1001-2 ☎062)266-7001, 011-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9663-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6-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6-278-7712
- 평택만민농아교회 경기도 평택시 비전 2동 221-7 ☎031)665-1405, 011-358-5973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3708-1537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1-701-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173-11 ☎043)283-5004,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령동 956 ☎016-215-0116, 010-4155-588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1100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2동 626-1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3745-2119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2536-2515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8-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중앙동 95-3 ☎055)289-9522, 011-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웅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1-214-8891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192-3 2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구미시 오태동 742-4 ☎054)464-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3592-9522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153 ☎061)452-7443, 011-608-3037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2가 929-1 ☎063)223-9991, 018-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1동 250-3 ☎063)853-0675, 011-671-7191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11 ☎033)251-1144, 010-7770-2073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3731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12-2 ☎033)641-3790, 017-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연동 2307-5 ☎064)745-0675, 010-2468-2251
- 영동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88-26 ☎02)995-9951, 011-777-1217, 011-719-2073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검당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31)781-9830, 017-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1동 348-5 ☎02)489-3766, 016-776-101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2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158-5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종리동 465-4 ☎031)635-9103, 016-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165-1 ☎031)840-2906, 019-251-3149